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일 화요일 음 12월 21일 (13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C. 낮 최고기온은 4-8°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Rows show 10% probability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구름많음. Rows show 3/9°C and 7/9°C.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Rows show food safety and visibility information.

월드뉴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공식 선언

1년간 비상사태 선포 정부 고위 인사 구금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미얀마 군부가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후 국영 TV·라디오 방송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군 TV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들을 실행했다"면서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수도인 네피도는 물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인터넷 및 전화선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군 TV는 또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 제도에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수치 고문을 포함해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새벽 전격 감행된 쿠데타 이

한리일보 advertisement box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

한라칼럼



이 남 호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학과 교수

제주형 K-뷰티 해외인력 양성에 대한 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부총리 주재의 혁신전략회의에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연간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겠다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충북 오송 산업단지에 2023년까지 교육관과 기숙사를 설립해 해외 연수생 등 매년 8000명의 뷰티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는 천혜의 관광지 제주를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높다. 또한 제주도는 오래 전부터 화장품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 K-뷰티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

필자는 제주도 차원에서 K-뷰티 외국인 연수생 교육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K-뷰티 교육의 수요는 꾸준히 발생했다.

현 시점에서 해외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K-뷰티 교육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뷰티 및 화장품 교육은 국내에서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에 관련 학과가 있으며 공간 확보 등 예산에 대한 부담도 없다.

있다.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실제로 K-뷰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는 2022년부터 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비해 국가 정책과 연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마당

코로나19, 1주년을 보내는 제주 119



양 영 석 제주소방안전본부 구급팀장

최근 들어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공식 인정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로 이송했다. 또한 도입 3개월만에 119응급특수구급차가 활동한 실적만 800건이 넘는다.

간편한 제주 안심코드 조기 정착을 위해



박 호 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그뿐만 아니라, 소방의 보조단체인 제주소방방대도 각 지역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과 마스크 판매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일손을 보태며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월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없고 방문자는 방문 기록을 적을 때 이름, 전화번호 등을 남기지 않아도 되며 방문출입 기록도 4주 후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없어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이 통한 것일까. 도내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언제 어디서 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지 모른다.

그리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에 누가 다녀갔는지에 대한 정보와 다녀간 사람과 접촉자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감염 확산 방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염원일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제주 방역정책에 따라 10분 이상 환기, 마스크 쓰기, 음식 덜어먹기, 거리 두기 준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휴대폰에 설치하기 등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동참시키자. 도민 결여 항상 제주 119가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 예방접종,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제주 119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음식점, 학원, 카페 등 출입자 관리 의무시설을 중심으로 제주 안심 코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내 4만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

월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동 동선과 접촉자까지 확인이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행정력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최근 제주도에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예상롭지 않다. 신속한 역학 조사와 n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이 제주 안심코드 가입과 함께 전 도민이 자발적인 QR코드 인증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프라자' (International Hearing Aid Plaza)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contact info, and a map.

Advertisement for '그랜드보청기' (Grand Hearing Aid) featuring a photo of a child, award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제주시정소식' (Jeju City News) containing a table of council members and lists of public notices.